

"스키장 기상 한눈에 파악"

- 2003년 날씨수익상 -

대명 비발디 콘도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한 웨더스테이션을 운영함으로써 스키장 전체 13개의 슬로프의 인공설을 만드는데 기상변화와 기상관측자료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하게 되었다.



< 웨더스테이션 운영 >

대명레저산업(www.daemyungcondo.com 대표 차인규) 비발디 스키장은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한 '웨더스테이션(weather station)'을 운영하고 있다. 웨더스테이션은 단순한 기상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13개 슬로프에 인공설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스키장 특성 상 제설팀을 별도로 구성해 기상변화와 기상관측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웨더스테이션은 이를 위해 수년 간 일별·시간대별 기상자료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스키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슬로프 정상과 하단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해 시간단위로 관측하고 있다. 겨울에는 특히 시간단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직 근무자들은 수시로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상황실에 보고함으로써 시시각각 기상관측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매시간 체크하는 온도와 습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설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눈을 만드는 재료로 물이 쓰이는 만큼 눈이 만들어지지 않는 온도와 습도에서 제설하게 되면 이미 쌓여 있는 눈마저 녹을 수 있는 과실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또 제설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실시간 파악되는 날씨정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웨더스테이션은 결국 더 좋은 슬로프의 설치와 쾌적한 주변 환경유지, 강설시 이동하기 쉽고 편리한 도로 및 교통수단 제공 등 고객만족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1. 날씨 경영의 추진배경

18C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구조상의 많은 변혁이 일어났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각이 아닌 즐기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날씨와 레저산업의 관계

레저 산업은 기상변화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기상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레저산업분야에서 도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장은 겨울이라는 한정된 기간동안은 날씨를 이용하여 레저 산업분야에 일부분으로서 고객들의 여가 활용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

당스키장은 13개의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에 모두 자연설이 아닌 인공설을 만들어 스키장을 운영해야 하므로 기상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개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날씨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 비발디파크에는 제설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상변화 및 기상측정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수년간 매일 시간대별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기상청정보 및 케이웨더의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낮은 온도(-1℃)에서 적정습도(60%)가 이루어지면 제설기를 슬로프상에 설치하여 제설을 하여야 하므로 항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날씨경영체계를 이룸으로서 낭비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레저업체 중에서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스키장일 것이다. 한철 사업이면서 겨울에 즐기는 스키는 요즘 들어 개인의 여가 활동시간이 늘어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부상하고 있다. 대명 비발디파크는 골프장 및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어 봄, 여름, 가을에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겨울에는 눈을 만들어 스키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겨울인 현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하여 많은 고객들의 여가 활동에 일조하고 있다.

제설팀에서는 회사의 운영방식에 맞추어 날씨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설을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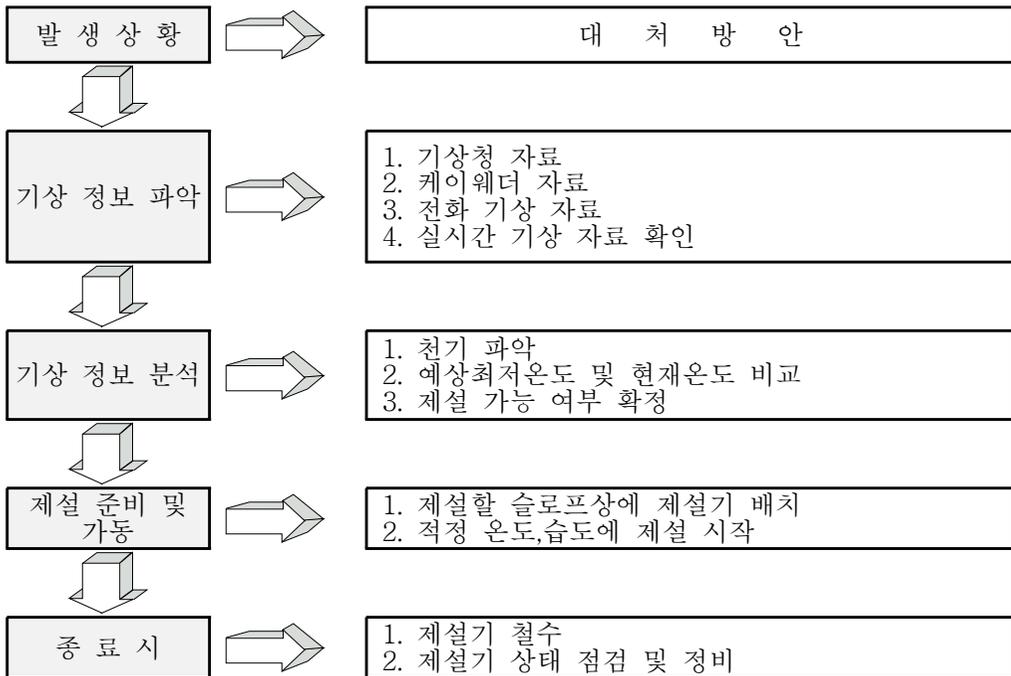
다. 날씨에 대한 정보는 기상청의 실시간정보와 현장의 웨더스테이션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제설에 임하고 있다.

3. 날씨와 회사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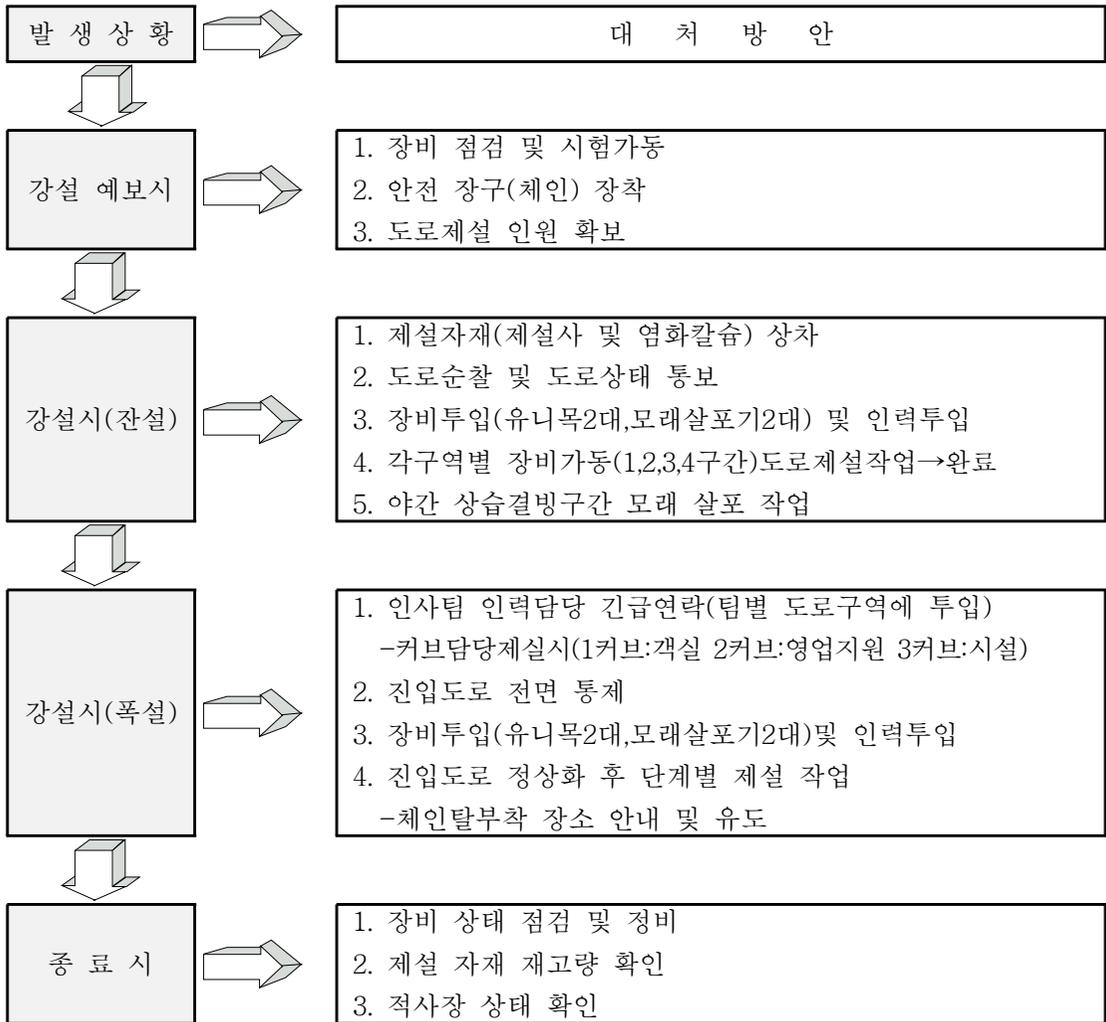
경영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위의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기업에게 이윤을 창출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더 좋은 슬로프 설질유지, 쾌적한 주변 환경, 강설시 이동하기 쉽고 편리한 도로 상태와 교통수단 등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사람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날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해서 방관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는 고객만족이라는 최우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가. 슬로프 관리 시스템



나. 도로제설 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여 우리는 보다 좋은 상품과 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날씨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명 비발디파크에 연간 오픈 날짜 를 알아보겠다.

년도	오픈일
1993	11월 29일
1994	12월 17일
1995	12월 9일
1996	12월 7일
1997	12월 6일
1998	12월 5일
1999	12월 3일
2000	12월 8일
2001	12월 8일
2002	11월 21일

위의 자료를 보다시피 오픈일이 일정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혁명이 후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스포츠, 레저 분야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기업이 앞으로 전개해 나갈 전략이나 마케팅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명 비발디파크에서는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비단, 스키장운영뿐 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도 날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될 만큼 날씨는 이제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4. 제설시스템

대명비발디파크에 날씨경영을 통한 제설 시스템을 알아보겠다. 제설팀에서는 좋은 질의 눈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가. 제설의 원리

압축된 공기와 물을 제설기의 세밀한 노즐을 통하여 저온의(-1℃)대기중에 분사시키면 대기중에서 미립자로 되어서 혼합하여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내에 얼어서 눈을 생산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아주 작은 얼음덩어리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원리에 의하여 자연설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눈을 만들어서 스키를 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제설시스템

▷ 제설기 보유 현황

GUN제설기 : 81대 (요크40대 라티닉떠블29대 라치몬드10대 라티닉싱글2대)

FAN제설기 : 18대 (렌코 3대 라티마10대 폴켓5대)

▷ 물배관라인

①HIGH 물배관 펌프수 : 3대, 대당시간 펌핑량 : 125TON, 총물공급량 : 375TON

②LOW 물배관 펌프수 : 4대, 대당시간 펌핑량 : 120TON, 총물공급량 : 480TON

▷ 에어공급량

①전동 COMP수 : 5대, 대당에어생산량 : 2200cfm, 총에어생산량 : 11,000cfm

②임대 COMP수 : 10대, 대당에어생산량 : 800cfm, 총에어생산량 : 8,000cfm

대명 비발디파크 제설팀에서는 수년간의 일별 시간대별 기상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스키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제설을 위해 슬로프 정상과 하단 슬로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하여 시간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다.

겨울에는 시간단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직 근무자는 수시로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여 상황실에 보고하고 기상 측정 판에 기록하고 있다. 다음날의 기상변화에 대한 측정은 기상청정보와 케이웨더의 자료를 수집하고 제설작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매시간 체크되고 있는 온도와 습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설은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눈을 만드는 재료로 물이 쓰이기 때문에 눈이 만들어지지 않는 온도와 습도에서 제설을 하게 되면 이미 쌓여 있는 눈마저 녹일 수 있고 제설은 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설결정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제설기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게 된다. 제설을 하게 되더라도 근무당사자는 온도와 습도의 자료를 숙지하여 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물의 양을 조절 한다던가 제설기의 각도를 조절하는 등의 스스로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상자료를 미리 탐지하여 눈이 내리는 때에는 대명 비발디파크를 찾는 고객들로 하여금 편히 올 수 있도록 도로에 쌓인 눈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상의 변화를 알아야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날씨경영을 통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날씨경영을 해서 우리만의 이익을 얻고 우리만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도 한몫을 차지한다. 이렇듯 나하나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 더불어서 웃고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더불어 날씨경영이 더 큰 뒷받침을 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날씨경영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대명 비발디파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